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03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4월 10일 (음력 3월 5일) 목요일

한나라당 과반 확보 '여대야소'

지역·비례 합쳐 153석 차지
민주당, 81석 원내 2당으로

관련기사 2·3·4·5·6·7·8·9·10·20면

9일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전체 299개 의석 가운데 과반을 넘는 153석을 확보했으나 민주당은 81석에 그쳐 개헌 저지선 확보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국 245곳의 지역구 가운데 131곳에서 당선자를 내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22석)를 합칠 경우 과반을 넘은 153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전국 66곳의 지역구에서 당선을 확정, 비례대표 의석(15석)을 포함해 81석을 차지했으나 당초 목표였던 개헌 저지선 확보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종 법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이명박 정부의 성장 우선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한나라당과 양당 체제를 구축하게 됐지만 81석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한나라당 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을 중심으로 지역구 14석과 비례대표 의석(4석)를 합쳐 18석의 의석을 확보, 당초 목표였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지만 원내 3당으로 18대 국회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2석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으나 내분 등의 영향으로 정당득표율에서는 다소 부진, 비례대표 의석은 3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한나라당 공천 탈락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탈당파로 친박 연대는 지역구에서 6석, 비례대표에서 8석 정도를 차지, 나름대로 선전했다.

창조한국당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거두는데 그쳤다.

무소속은 광주·전남지역 4곳을 비롯, 전국적으로 25명이 당선돼 이변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진보신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내세운 '한나라당 견제론'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나라당의 '안정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이 국회 의석수의 3분의 2를 장악한데 반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둬 국회의 주도권은 사실상 보수 진영이 장악하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국 당선자 현황

	지역구	비례	계
통합민주	66	15	81
한나라	131	22	153
자유선진	14	4	18
친박연대	6	8	14
민노	2	3	5
진보	0	0	0
창조한국	1	2	3
무소속	25	-	25

"당선 만세" 18대 총선 개표과정을 지켜보던 박주선 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위)와 박지원 무소속 목포 후보가 9일밤 10시30분께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두 손을 치켜들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위직량·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에도 AI 공습

영암에 의심 닭 발견

전북 정읍과 김제 등에 이어 영암지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닭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11면〉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 신북면 이모씨의 양계농장에서 AI 의심 증세로 폐사한 닭이 발견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장에서는 전북지역에서 들여온 1만7천800여마리의 종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8일 오전부터 호흡기 질환과 안면부종, 활력 저하 등 AI 감염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8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닭의 경우 잠복기간이 긴 오리와 달리 감염시 곧바로 폐사하는 특성상 이틀에 걸쳐 폐사한 닭의 수가 80마리로 비교적 적은 점을 들어 AI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폐사한 닭의 가검물 등을 채취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간이검사를 벌인 결과 항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농장에 대해 닭과 차량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군 소유 방제차를 긴급 투입해 소독을 벌이는 한편 방역관을 상주시켜 나머지 닭의 증세를 주시하도록 했다.

전남지역에서 올 들어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AI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우려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고향인 광주에서 법무법인 로컴의 대표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학력 및 경력

· 광주서중, 경기고, 서울대법대 졸업
·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전주지검장
· 대검공판송무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마약과장
· 광주지검순천지청장, 대구지검김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형사 2부장, 4부장, 5부장 서울북부지검특별수사부장
·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법무심의관실검사

※ 개업소연 : 2008년 4월 17일(목) 17:30분

변호사 임 내 현 올림

■ 업무개시 : 2008년 4월 10일(목) ■ 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8-33 법무법인로컴
■ 대표전화 : (062)228-9999 ■ FAX : (062)228-9909

광주·전남 무소속 4석 '돌풍'

강운태·박지원·김영록·이윤석 당선

18대 총선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전체 20개 의석의 20%인 4 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통합민주당은 16석을 차지하며 체면을 지켰다.

〈관련기사 3면〉

이처럼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무소속이 선전한 것은 일부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공천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무안·신안), 최측근인 박지원(목포)과 한화갑(광주 북갑)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으나 박 후보만 유일하게 당선돼 김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줬다.

9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개표 결과, 광주에서는 박주선(동구), 조영택(서갑), 김영진(서울), 강운태(남구), 강기정(북갑), 김재균(북을), 김동철(광산갑), 이용섭(광산을) 후보 등이 당선됐다.

전남에서는 박상천(고흥·보성),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이낙연(영광·함평·장성), 김성곤(여수갑), 유선호(장흥·영암·강진), 최인기(나주·화순), 주승용(여수을), 서갑원(순천), 우윤근(여수을), 이윤석(무안·신안), 김영록(해남·진도·완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 중 무소속은 강운태, 박지원, 김영록, 이윤석 후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대학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